

## 광주·전남 사립대 경영 '부실'

정두언 의원 '2006년 결산경영 상태' 자료  
부채비율·장학금 등 21개 지표  
A등급 받은 학교 한 곳도 없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의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88개 사립대학 2006년 결산경영 상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중 평가지표 종합에서 A등급을 받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관련기사 3면〉

광주대와 동신대, 조선대, 호남대가 종합 B등급을 받았으며, 광주여대, 대불대, 초당대, 남부대는 각각 C등급을 받았다. 광주대는 재무부문에서 C등급을, 교육투자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조선대와 호남대는 두 부문 모두 B등급을, 동신대는 재무부

문 C등급, 교육투자 부문 B등급을 각각 받았다.

이번 평가는 재무와 교육투자부문 등 2개로 나뉘어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매겨졌으며, 각 대학의 재무운영비율, 부채비율, 자산 증가율, 학생 1인당 장학금, 교수 1인당 연구비, 학생 등록률 등 21개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등급을 매기기 전 점수로 환산된 결과에 따르면 호남대는 재무부문 41.13점, 교육투자부문 46.81점을 받아 133점 만점에 종합 점수 87.94점을 기록, 광주·전남 사립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호남대의 재무부문 지표는 ▲운영비율 93.7% ▲인건비 구성비율 37.5% ▲기부보조금 구성비율 21.1%

■광주·전남 사립대 2006년 경영 분석

학교명	재무 부문 등급(점수)	교육투자 부문 등급(점수)	종합 등급(점수)
광주대	C(37.19)	A(59.67)	B(87.86)
광주여대	C(34.22)	C(37.05)	C(71.27)
남부대	C(35.25)	B(41.70)	C(76.95)
대불대	B(41.06)	C(48.95)	C(77.18)
동신대	C(37.02)	B(48.95)	B(85.97)
조선대	B(47.39)	B(48.41)	B(85.82)
초당대	B(41.60)	D(32.32)	C(73.92)
호남대	B(41.13)	B(46.81)	B(87.94)

\*각 부문 50점 만점이외 가중치를 뒤 종합점수 만점은 133점, 백일은 가나다순

(자료: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실)

▲부채비율 4.4% ▲총자산증가율 105% ▲운영수익 증가율 107.7% 등이었고, 교육투자부문 지표는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 132만원 ▲학생 1인당 교육비 771만2천원 ▲등록금 환원율 132.2% ▲교수 1인당 연구비 2천186만9천원 등이었다.

광주대가 종합 점수 87.86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동신대 85.97점 ▲조선대 85.82점 ▲대불대 77.18점

▲남부대 76.95점 ▲초당대 73.92점 ▲광주여대 71.27점 등이었다.

호남대와 광주대가 조사 대상 188개 대학 중 전국 순위 64위, 65위로 가까스로 중상위권을 유지했으며 C등급을 받은 대불대(129위), 남부대(131위), 초당대(151위), 광주여대(165위) 등은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한국항공대로 종합점수 114.49점이었으며, 포항공대(113.35점), 고려대(110.98점), 성균관대(109.57점), 연세대(108.62점), 한양대(108.1점), 경희대(107.7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대학을 포함, 전국 20개 대학이 종합점수 100점을 넘겨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20개 대학 중 비(非)수도권 대학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육대(충남 천안), 인제대(경남 김해), 한림대(강원 춘천), 울산대 등 5개였다. B등급을 받은 대학은 96개, C등급을 받은 대학은 68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학교는 4개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세계 광엑스포 개막

23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8 국제광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2009 광주 세계 광(光)엑스포'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국내외의 160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25일까지 열린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수도권 규제 완화' 반발 확산 비 수도권 지자체 "연대 투쟁"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단체 결의문 채택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내놓자 광주·전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5일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지방 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비수도권 단체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4일 충남 연기에서 열리는 '지방 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비수도권 단체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에 참석,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연대 투쟁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단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기관들이 참석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대안없이 '선 지역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뒤집고 수도권 육성책에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연대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수도권에 특혜를 주기 위한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신속으로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영남 권중개발을 통해 영·호남의 지역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선, 주승용, 최인기, 강기정, 박지원, 김성근, 김영록, 이용섭, 조영택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1.5km 초대형 해상 전시공간 건립 100m높이 기념탑은 설치 않기로



여수박람회 조직위, 기본 계획안 잠정 확정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바다와 해안, 거리를 활용한 3개의 대규모 핵심 전시공간을 통해 치러진다. 또 기존에 랜드마크(기념비적인 조형물)로 계획됐던 100m 높이의 기념탑은 건립하지 않기로 했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람회 기본계획안'을 잠정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박람회 부지 174만㎡내에 둘레 1.5km, 수심 5~10m 가량의 초대형 해상 전시공간인 'BIG O(Ocean)'가 건립된

다. 'BIG O'는 오션타워를 통해 바다로 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조력발전 시험을 비롯한 각종 해양 관련 연구와 실험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 박람회 부지와 해안이 맞닿은 지역에는 서울시청 광장 면적의 1.5배(2만3천㎡)에 이르는 삼각형 모양의 대규모 다도해공원 '코스탈트라이앵글'(Coastal Triangle)이 조성된다. 바다·해안 체험공간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기존의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 인공섬과 모래 등으로 만들어지며, 다도해를 1천분의 1로 축소한 모형도 함께 들어선다.

이와 함께 여수시내 KTX역 인근의 길이 600m, 폭 20m의 거리를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스트리트'(Digital Street)로 꾸미며, 메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당시 '랜드마크'로 계획했던 100m 높이의 고층타워는 건립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지 주변에 있는 높이 50m의 레미콘 제조회사 '사일로'(Silo-탑 모양의 건축물) 2개를 재활용, 유리관을 씌워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BIG O'와 코스탈트라이앵글, 디지털스트리트는 박람회 이후에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직위원회는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고흥과 경남 남해에서 선박을 이용해 박람회 부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고흥과 남해에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조직위원회는 여수세계박람회 전체적으로 생산유발 10조 원, 부가가치유발 4조 원, 고용유발 9만 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조직위원회는 이 같은 잠정 기본계획안을 오는 25일 공청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여수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1월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 뮤지컬 시카고

10.3~10.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www.tickets.com.co.kr

# CHICAGO